

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143호_발행일 : 2005년 9월 25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5년 교회표어 : 꿈을 꾸고 이상을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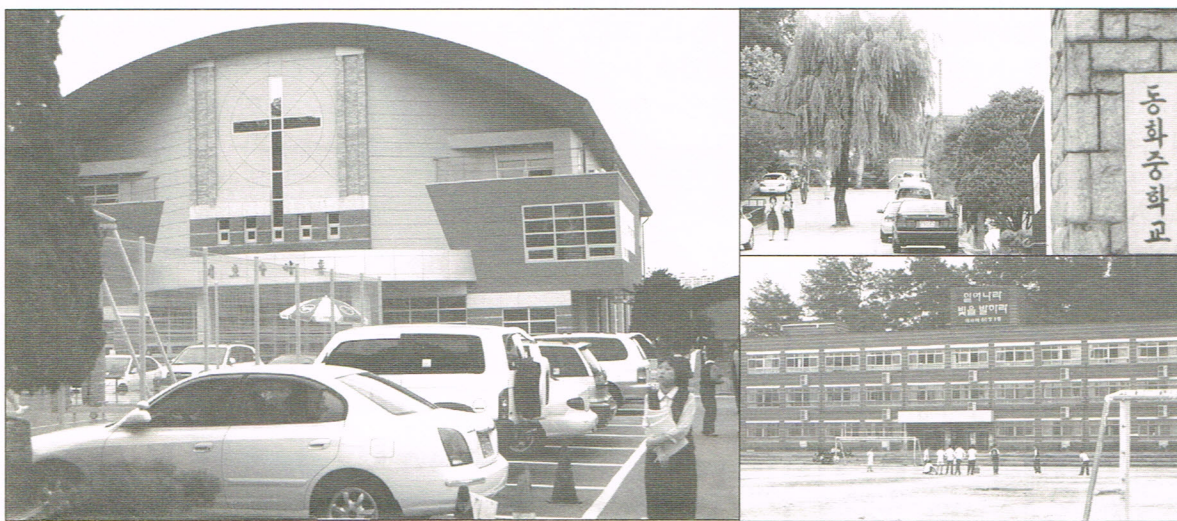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_02-416-5181_www.pcltv.org

기사제보 :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주님의교회 첫 번식교회를 위한 기도회, 10월 30일까지 매주일 저녁마다 있어 오늘 저녁 7시 소예배실에서 첫 기도회 모임 가질 예정



주님의교회는 크게 4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이다. 교회 번식은 문동학 담임 목사가 부임한 2003년부터 성도들과 함께 나눈 교회의 중요한 비전 가운데 하나이다. 그 첫 번째 교회 번식을 드디어 하게 된다. 일단 번식교회의 첫 예배는 11월 첫 주로 계획하고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일 저녁 7시에 소예배실에서 모여 교회 번식을 위한 기도회 모임을 계속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 교회 번식을 하게 될 장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106번지에 위치한 동화중고등학교이다. 동화학원은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미션 스쿨이며, 학생은 남녀공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인원은 2700명, 교사는 170명이다. 학교는 구리시와

밀접하게 위치해 있으며 을 연말에 학교 정문 앞으로 도농전철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번식 교회가 들어설 공간은 현재 싸이클부와 유도부가 있는 체육시설 공간 200여평에서 드리게 된다. 최근에 '여호수아 홀'이라 명명된 강당을 신축 완공하여 전교생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번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사항들은 오늘부터 매주 계속될 기도회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누게 되고 함즐함울을 통해서도 번식교회에 관한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자주 공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교회가 처음으로 번식하게 되는 번식 교회에 직간접적으로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여 우리교회가 3년 만에 처음으로 번식하게 되는 번식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월만한 물가 서적 사역팀

김영중 집사를 중심으로 송성의, 임정숙, 윤경희, 김경순 집사가 주일에 함께 이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1부 예배후부터 서적 판매와 입고 처리, 라벨 작업 등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 봉사하는 성도는 매우 적어 교대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 좀 더 많은 봉사자의 참여를 기대한다.

월만한 물가에서 판매되는 서적은 정가를 받고 있으며 그 수익금은 선교와 구제에 전액 쓰일 계획이다. 앞으로 지원자들이 많아지면 책 읽는 모임도 만들어 독서 토론과 추천 도서 목록도 만들 계획이다.



주님의교회가 싹 띄운 교회에 의료선교봉사 다녀와

우리교회 의료선교부에서는 지난 11일(주일) 오후 안산에 있는 다문화교회를 방문하여 외국인 노동자 수십 명을 치료하고 돌아왔다. 의료

선교부에서는 내과, 외과, 한의학과 등 모든 이들이 함께 협력하여 진찰하고 정성껏 치료하며 약을 처방해주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문화교회는 90년 초 박천웅 목사의 개척과 동시에 주님의교회에서 보증금 600만원에 월세 20만원에 매월 지원하여 지하실의 작

은 공간에서 안산 형제교회로 시작하여 2003년에 다문화교회로 개명하였다. 다문화교회는 15년 동안 5만 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녀갔고, 현재 200여명의 국내외 성도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11시에 대예배와 중국어, 영어, 인도네시아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안산 다문화 교회는 주님의교회에서 개척 초부터 협력하여 세운 형제교회이니 주님의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선교나 나눔의 관계를 좀 더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5주간 계속된 아버지학교 오늘 마지막 시간 가져



지난 8월 21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아버지학교가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된다. 참가 인원은 104명의 아버지였으며, 그 중 우리 교회는 40여명의 성도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5주 동안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이라는 주제들로 강도 높은 학습과 훈련을 받고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주제를 끝으로 감동과 눈물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오늘 수료식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된다. 이 모임에 참석한 아버지들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배우고 진정한 남성으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배웠으며, 아버지의 자리를 회복하여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다함으로 자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함께 배웠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4가지의 영적 권세를 주셨다.

첫째, 축복권이다. 아홉이 자식들을 축복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을 가정에서 행사하여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야 한다.

둘째, 말씀권이다. 아버지는 가정예배와 기도와 간구 등의 경건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셋째, 훈육권이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교양과 훈계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부모 자신이 자녀의 삶의 지표가 되어 자녀에게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된다.

넷째, 신앙전수권이다. 아버지는 자녀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신앙을 자녀에게 잘 전수해 주어야 한다.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 주는 것이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며 아버지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이번 아버지학교에 지원한 아버지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 정말 아버지라는 귀중한 위치와 막중한 책임을 깨닫고 과거의 잘못을 눈물로 회개하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며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였다. 감동과 은혜를 경험한 많은 아버지들은 자신의 가정의 회복은 물론 자신이 느낀 감동과 치유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 다른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꺼이 스태프로 섬기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다음 주일(10월 2일)에는 문동학 목사를 강사로 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부부세미나'가 오후 4시부터 중예배실에서 열리게 된다. 관심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한다.

방과후학교 사역팀, 시청 서울광장에서 열린 청소년축제 참가해

방과후학교는 지난 10일(토요일), 시청 앞 서울광장 야외무대에서 저녁 6시부터 펼쳐진 청소년축제에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참가했다. 청소년사역단체인 라이즈업 코리아 청소년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2005 라이즈업 코리아(Rise Up Korea) 910 대회에 참가한 것이다. 약 5만여 명의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회개의 기도와 이 땅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렸다.

1부에서는 김진홍 목사의 '민족을 위한 하늘올림 기도'와 조용

기 목사의 '한국이여 일어나라'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고, 2부 행사에서는 팀과 김범수등의 가수들이 출연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뜨겁게 찬양을 드렸다. 이 시간 시청광장이 온통 기도와 찬양의 목소리로 가득 찼고, 특히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주님께 큰 소리로 간구하는 중보기도를 올릴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그 공간이 뜨겁게 달구어졌다. 방과후학교의 교사들과 청소년들도 같이 손을 잡고 찬양하며 서로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나누었다.

오늘 기도



사도행전 강해, 영적 전쟁과 다윗의 장막



영적 전쟁을 주제로 하는 양육클래스 과정이 1학기 여호수아 강해에 이어 2학기 사도행전 강해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강사는 박의일 목사이다. 영적 전쟁을 주제로 다루는 과정은 이번 학기로 1년 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영적 전쟁과 다윗의 장막(사도행전 강해) 과목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5층 찬양연습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44명의 성도가 신청하여 참여하고 있다.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본 과목은 사도행전을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특히 15장 16절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재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삶속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찾도록 돕는다. 그것은 우선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고자 하시는 비전을 함께 가슴에 품어야 하며, 자신 안에 계속 밀고 나가야 할 것을 중단한 것과 놓치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천국 문을 열고 은혜의 보좌를 세우며,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밝히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자의 삶 주일반

지난 9월 11일 제자의 삶 주일반이 3층 소년부실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강사 정영환 목사를 비롯하여 30여명의 성도들이 참여하였다. 이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새롭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성구인 마태복음 19:25-26,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를 함께 읽으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오직 은혜로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클래스에서는 본회퍼의 『나를 따라서』, 루카도의 『예수님처럼』, 김영봉목사의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를 함께 읽으면서, 이 세상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배우게 된다. 그룹별로 활발한 대화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함께 제자로 부르받은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다.



찬양과 경배로 승리하는 삶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면 3층 초등부실은 찬양과 말씀묵상과 기도의 시간으로 차분하면서도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로 변한다. 윤은성 목사와 함께하는 양육 클래스로서 기존의 찬양들을 관련된 말씀 묵상을 통하여 더 깊이 묵상

하며 찬양하는 시간과 새로운 찬양들을 배우고 예배와 찬양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함께 알아 나가며, 찬양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서로를 향한 사랑과 축복의 나눔이 있는 작은 찬양과 기도의 모임과 같다. 사모하는 영혼들은 누구나를 향해 열린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성도들을 초대한다.

2005 가을학기 PTP, 지금은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2005년 가을학기 PTP (학부모/교사 기도회)가 어제(토요일) 오전 10시에 소예배실에서 첫 시간을 가졌다. 이번학기 주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PTP기도회를 인도하는 홍민기 목사는 첫 시간에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통해 용기 있는 믿음생활을 통하

여 이 시대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했다. 지난봄부터 시작한 이 기도회는 매회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타 교회 학부모들까지 소문을 듣고 함께 참석하는 수가 늘고 있다. 매달 네 번째 주는 아이들이 학

교에 가지 않는 날임으로 온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참석한 아이들을 가정단위로 기도해주는 시간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삶속에 뜨거운 기도로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모든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함께 모여 예배와 기도를 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교회 다음세대 사역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됨을 감사한다.

호스피스 사역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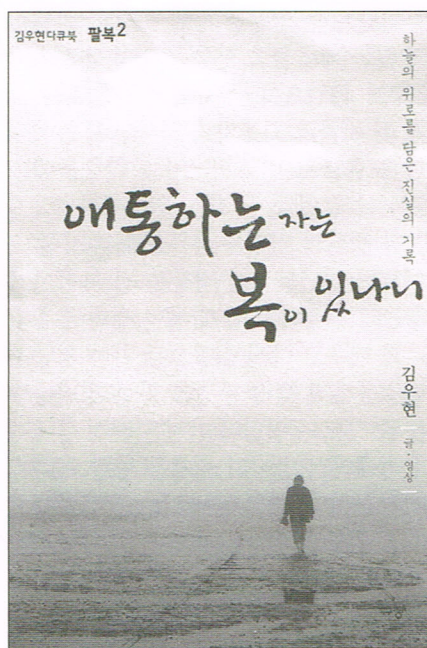
1994년부터 주님의교회 호스피스 사역이 시작된 이후 많은 교회식구들이 이 사역에 동역하였지만 현재 50명에 이르는 사랑의 봉사자들이 호스피스 자원봉사 전문 교육을 받고 봉사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다.

1995년 원자력 병원 어린이 암 병동에서 처음 시작한 후 끊임없이 호스피스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병원과 가정을 찾아서 섬기고 있다.

환우와 그 가족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대처하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호스피스 사역의 기본정신으로 알고 10년이 넘도록 계속 많은 사랑의 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섬김의 사역을 하고 있다. 지금은 서울 의료원(구 강남시립병원), 국립의료원, 아산병원, 경찰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한양대 서울병원, 보라매 병원, 안양 샘병원에서 팀을 이루어 봉사하고 있다.

이번 가을에 있을 호스피스 사역을 위한 전문 교육에 우리교회 성도중 11명이 새롭게 호스피스 사역에 지원 헌신하여 주어 앞으로 호스피스 사역의 활성화에 기대가 매우 크다.

김우현 감독과 팔복 다큐멘터리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난 9월 11일 청년예배 시간에는 최춘선 할아버지의 삶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팔복 시리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 이어 두 번째 시리즈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제작 발표한 김우현 감독이 초대되어 왔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시선을 두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게 된 사람들을 소개하였다. 애통의 그림자가 너무나 짙게 다가와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시간이었지만 김우현 감독의 간증으로 애통하는 자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나누며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작은 애통, 드러나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하신 눈물의 의미를 확인해주는 애통의 재조명 시간이었음에 큰 의미가 있었다.

김선일 형제에 대한 친구들의 증언과 카작스탄에서 선교하던 중 아내가 피한들에게 피살당한 한재성 선교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애통의 씨앗으로 세계 각 곳에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흔적들이 우리의 가슴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적시기에 충분하였다.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을 살해한 민족과 땅을 이제 자신의 땅 끝으로 품고 아내의 피 값을 그 땅의 영혼의 열매로 되찾고 싶은 선교사의 피로 얼룩진 고백이 가슴 깊은 곳에 남는다

목요모임

그리스도인은 이방의 빛!

9월 22일 목요모임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교목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설교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비유하는데 여기서 말한 ‘빛’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자.

마태복음 5:13-16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빛이 아니다. 이것은 이방의 빛, 선교적인 의미이다. 그냥 기독교적 윤리만 생각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을 보는데 분명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빛은 이방의 빛으로 사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가

42장에서 나오는 이방의 빛으로서의 소명을 인식하면서 묵상해보자. 여기서 빛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빛은 하나님이 불드는 종이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성령을 받고 이방에 공의를 베푸는 자라고 한다. 윤리로서 읽고 선한 행실을 강조하면 엄청난 스트레스에 매여 있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매여 있게 된다. 성경은 윤리서가 아니고 선교서이다.

그럼 이방의 빛으로 무엇을 하는가? 성경에서는 진리로 공의, 정의를 베푸는다고 한다. 윤리적인 맥락이 아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개념으로 진

리는 예수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하나님은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주신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사야 49장은 그렇게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내가 될려고 하면 안된다. 성령충만을 위해 하나님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에서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빛이 되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다.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become이 아니라 be이다. 윤리가 아니라 존재이다. doing의 문제이기 이전에 being의 문제이다.

영아부, 남성 교사 턱없이 부족해

영아부는 아이들의 부모가 예배드리는 동안 아이들과 떨어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영아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도록 돕는 부서이다.

영아부는 3부 예배 시간에 지하 1층 영아부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영아부 아이들은 보통 생후 3개월에서 24개월 이내의

아이들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덩이에는 대부분 기저귀를 달고 다닌다. 처음에는 겨우 기어 다니다가 조금 지나면 앉기도 하고 뒤뚱뒤뚱 걷기도 한다. 아이들은 말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보통은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

아이들이 교사리 손으로 어색한 모습이지만 찬양을 따라 하

는 모습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다.

영아부에는 현재 40여명의 아이들이 등록해 있고 20여명의 교사들이 봉사하고 있다. 그러나 영아부 교사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남성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남성 교사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성교사가 현실적으로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기에 성도중 영아부를 섬기기 원하는 남성 교사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

30CUP WORSHIP SERVICE

셋째주일 오후 4시 대예배실

- 9월 25일 바베트의 만찬
- 10월 16일 꼭 필요한 한가지
- 11월 20일 약한 나로 강하게
- 12월 18일 유대땅 베들레헴
- 말씀 : 김현령목사
- 어린이자녀들도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며 탁아방이 운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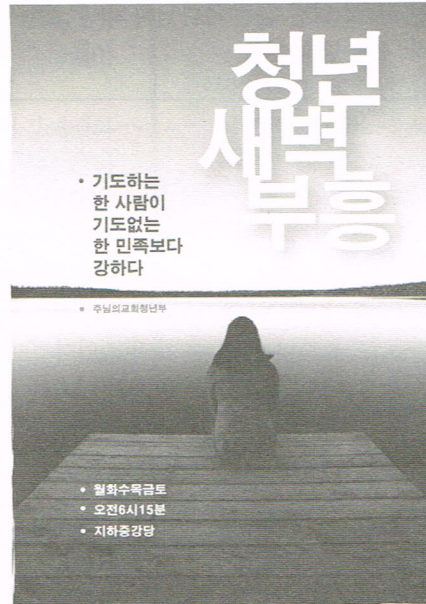
유치부 교사, 1박 2일 MT 다녀와

유치부 교사들은 지난 2~3일 1박2일 동안 안면도로 MT를 다녀왔다. 함께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지만 사정상 올들어 한 번도 교사들끼리의 시간을 갖지 못했었다. 그래서 이번 MT는 더욱 설레이고 기대되는 시간이었다. 비가 조금 내리는 오후 교회에 모여 안면도를 향해 출발했다. 네다섯명씩 나눠 탄 차 속에서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출발한지 4시간 만에 도착한 곳은 안면도에 있는 한 펜션이었다. TV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멋진 2층 펜션에 들어서니 모두들 출발할 때 보다 더 들

뜬 마음으로 구석구석 펜션 구경에 나섰다. 바베큐를 구워먹는 숯불에 삼겹살을 구워 맛있게 먹고 자정이 넘어서야 둘러앉아 기도회를 할 수 있었다.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고 평소에 못했던 얘기와 함께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었다. MT까지 와서 기도회를 한다고 불평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역시 신실한 유치부 교사들, 너무 은혜스럽게 함께 기도했다. 기도 후 아담한 펜션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유치부를 열심히 섬기는 귀한 교사들에게 멋진 쉬의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청년새벽부흥

불길이 번져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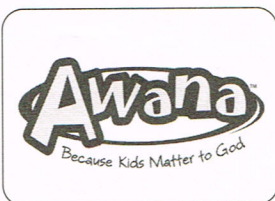
청년부에서 8월 29일부터 중보기도 모임으로 시작하여 9월 5일 정식으로 시작한 청년새벽부흥기도회가 계속하여 기도의 열기로 불타오르고 있다. 매일 새벽 80여명의 청년들이 평균적으로 출석하며 130여명의 청년들이 비정기적이지만 참여하고 있는 청년새벽부흥은 이미 청년들의 삶에 많은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새벽에 기도하는 신앙의 행위로서의 새벽 기도나 특별새벽기도와 같은 단회성, 또는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이 새벽부흥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실 부흥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시작되었다. 부흥의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개인의 삶의 변화의 열매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무절제한 무계획적인 삶의 방만한 태도까지도 개혁하고 바꾸어 놓을 것이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나스의 고백을 이 시대의 청년들의 고백으로 품고 나아가는 개인적 기도의 깊은 체험이 있는 자리이다. 시대적 상황을 향한 영적 분별 가운데 이 시대에 젊은 청년들의 기도 무릎의 부흥이 오직 민족과 나라의 미래이며,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의 미래라는 확신 가운데 시작된 새벽부흥의 불길은 장년들과 청년 부모들의 동참으로 더욱 불타오르고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15분부터 중강당에서 매일 계속되는 새벽부흥의 열기에 부흥의 불씨가 될 성도들 누구든지 초청한다.

청년새벽부흥의 놀라운 간증 행진!!!

매일 아침 식사를 제공하여 청년들을 새벽부흥 기도 후 직장으로 학생들은 학교로 도서관으로 가도록 권장하여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일에도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 관계로 청년부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많은 성도들의 개인 그리고 구역 식구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과 하루 아침씩 맡아서 헌신하여 주시는 성도들의 도움과 한 성도의 청년부흥 새벽기도가 중단되는 그 날까지 매일 아침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헌신으로 연간 수천만원의 경비를 절약하게 된 놀라운 간증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놀라운 간증과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새벽 부흥 기도에 동참하면서부터 하루가 이렇게 긴 줄 몰랐다는 고백은 허다하며, 기도하면서 자신의 미래가 달라졌다는 고백들과 주저하고 도전하지 못하던 비전에 헌신할 수 있는 과감한 용기와 결단도 가지게 되었으며, 영혼을 향한 사랑의 회복과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기도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었으며,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된 것과 성격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간증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멀리는 용인에서부터 한시간 반 정도의 거리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청년들부터 직장을 집 가까이 두고서도 교회에 와서 함께 청년 새벽 부흥의 자리를 깨우고 다시 직장으로 가는 청년들의 발걸음까지 새벽 부흥을 향한 청년들의식을 줄 모르는 열정과 헌신은 진정 한국 교회의 미래의 소망이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임을 확신한다. 기도로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은혜를 더욱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누리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어와나 리더를 모집합니다!!



어와나소개

어와나(AWANA)는 만 4세 이상의 어린이들을 위한 국제적, 초교파적, 성경 중심적 선교, 훈련 기관이다.

어와나의 비전

주님의교회 어와나는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훈련하여 믿음의 지도자들로 세우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역시간

매주 토요일(매월 넷째 주 제외) 오후2~6시

모집요강

어와나에서는 새로운 클럽(T&T Club-대상:초등학교 3~6학년)을 구성하고 준비하기 위해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불티단(Sparks Club-대상:취학전1년~초등학교2학년) 리더들은 상시모집.

T&T 2006년 3월 오픈, 1기 모집

Sparks (불티단) 2006년 3월 2기 모집

문의: 유영안 전도사 011-9040-9809

모집구분

- 총디렉터 (1명) 클럽의 총책임자로서 디렉터들과 협력하여 클럽을 이끈다.
- 게임디렉터 (2명) 어와나 게임프로그램을 배우고, 이를 지도한다.
- 교제디렉터 (2명) 교제시간에 클럽원들이 다양하고 신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 찬양리더 (2명) 교제시간에 찬양을 인도한다.
- 서기 (1명) 클럽의 교육 및 훈련자료를 정리한다.
- 회계 (1명) 클럽의 재정을 관리한다.
- 엔지니어 (2명) 음향 및 영상기기의 세팅과 관리 한다.
- 팀리더 (20명) 클럽원들의 성경암송을 지도한다.
- 보조교사 (00명)